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 용 식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시각 표현을 통한 시·공간의
면지 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2019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판화학과
강 보 라

시각 표현을 통한 시·공간의
면지 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김 용 식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판화학과

강 보 라

인 준 서

강보라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8년 11월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본 논문은 2018년 석사학위 청구 전 <남아 있는 것들>에 전시된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내용과 조형적 전개 과정을 연구한 것이다.

우리는 오래 살던 집에서 이사 갈 때, 가구를 들어내면서 가구가 있던 자리의 흔적을 발견한다. 흔적(痕跡)은 어떤 현상이나 실체가 없어졌거나 지나간 뒤에 남은 자국이나 자취를 뜻한다.¹⁾사람들은 각자 생활 방식에 따라, 살던 곳에 따라 저마다 다른 흔적을 나타낸다. 우리는 그 흔적을 통해 그곳에 살던 사람의 모습과 그 장소의 용도, 나아가 그 자리에 무엇이 있었는지 유추할 수 있다. 본인은 이러한 흔적 중에서 먼지에 주목하여 작업한다.

먼지는 우리의 삶과 긴밀한 관계를 갖는다. 먼지는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축적된 흔적이다. 이는 공간과 시간을 포함하여 우리의 삶의 행위가 내재된 ‘삶의 흔적’이다. 이러한 먼지를 작품으로 드러낸 작가로 에르빈부름(Erwin Wurm: Austria 1954-)이 있다. 그는 <*Dust Sculptures*> 시리즈를 제작하였다. <Pedestals> 작업은 그가 3년(1990~1993년) 동안 좌대 위에 어떠한 물체를 올려두었다가 떼어내고 주변에 남은 먼지를 조각으로 제시한 대표작이다. 작가는 좌대 위에 있는 조각만이 작품이라는 편견을 깨트리고 주변에 쌓인 먼지를 조각으로 제시함으로써 관객들에게 빈 공간에 무엇이 있었을지 상상하게 만들었다.²⁾

본인도 시, 공간의 상관관계에 의해 형성되는 먼지에 흥미를 갖고 있지만, 본인에게 먼지는 특정 공간의 ‘장소성’과 그 공간에서 본인의 행위가 결합

1) “국어”, 『동아 새국어사전』, 두산동아(2006)

2) The New York Times, “At Venice Biennale, Erwin Wurm Makes Sculpture ‘a Form of Action’”,
<https://www.nytimes.com/2017/06/15/arts/venice-biennale-erwin-wurm-sculpture.html>.
(2018년 10월 20일)

된 ‘삶의 자취’로써 기록이다. 이에 본인이 주로 생활하는 미술대학 조형관의 교실과 작업실의 실제 먼지를 채취하여 작업을 진행하였다. 먼지는 오랜 시간 속에서 공간의 쓰임과 그곳을 사용하는 사람에 의해 발생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그 속성에는 공간의 정체성과 본인의 자취가 담겨 있다. 공간은 학교가 될 수도 있고, 집이 될 수도 있다. 오랜 작업 과정을 통해 완성되는 본인의 작업은 화면 위에서 특정한 이미지(image)를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먼지의 고유성을 드러내며 추상적 형태, 색 등으로 표현된다. 본인은 작업을 통해 우리가 하루하루를 반복적으로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수많은 이미지와 감정 그리고 삶 속의 다양한 흔적을 보여주고자 한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II. 본론	3
1. 작품 속 시간과 공간	3
1) 시간과 공간의 의미	3
2) 시 공간 속에 축적된 먼지	5
2. 작품의 시각적 표현	7
1) 관화를 통해 표현된 먼지	7
2) 먼지로 표현된 추상적 이미지	8
3. 작품 분석	11
III. 결론	21

참고문헌

ABSTRACT

작 품 목 록

- [작품1] Dust-school, 10×10cm(each), Dust, Double-sided tape & paper on panel, 2016 (Detail-cut)
- [작품2] Dust-school, 10×10cm(each), Dust, Double-sided tape & paper on panel, 2016
- [작품3] Dust(studio)#1, 72×100cm, collagraph, 2017
- [작품4] Dust(studio)#2, 20×20cm(each), collagraph, 2017
- [작품5] Dust(studio)#3, 72×100cm, collagraph, 2017
- [작품6]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청강가창로389-94 #1, 20×20cm(each), collagraph, 2018
- [작품7]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청강가창로389-94 #1, 20×20cm(each), collagraph, 2018 (Detail-cut)

I. 서 론

본인은 사람들이 남긴 삶의 흔적 중에 ‘먼지’에 주목한다. 낡은 선박의 녹슨 자국이나 누렇게 변색 된 종이를 보고 지난 세월을 유추하듯이, 본인은 다양한 공간에서 오랜 시간을 통해 형성된 먼지를 통해 사람들의 흔적을 느낀다.

먼지는 모든 곳에서 발생하고 항상 우리 곁에 존재한다. 하지만 공간의 쓰임이나 그곳을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발생하는데, 본인은 이것을 시간의 축적으로 나타나는 특정 공간 고유의 흔적으로 보고 시각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비록 그곳에 누가 살았는지, 어떤 생김새의 사람인지 알 수 없으나 공간의 쓰임, 계절, 온도, 습도 등의 영향으로 모양뿐만 아니라 색, 질감, 무게 등이 모두 다르게 나타나는 먼지의 속성에 흥미를 느꼈다. 하지만 먼지는 유동성이 매우 강하고 외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를 채취하여 작업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의 해결방법으로 본인은 판화 기법을 활용하였다. 판화는 판(版)과 화(畵)의 합성어³⁾로, 판에 의해 그림으로 옮겨진다. 본인은 가볍고 존재감이 약한 먼지를 판으로 제작하여 조형적 실험을 하였다.

본인 작품의 내용과 조형적 관점을 서술하기 위해 본론에서 먼저, 시간과 공간의 의미를 재해석하였다. 수학적 의미에서 시간과 공간은 이론적으로 객관적인 설명이 가능하지만, 본인은 흔적이 시간과 공간을 연결하며 삶의 자취를 보여주는 매개체로써 주관적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본인의 작업을 바탕으로 시 공간 속에 형성된 먼지를 내용적 측면과 형식적 측면으로 분석하였다. 그중에서도 형식적 측면을 중점적으로 서술하였다. 내

3) “미술”, 『세계미술 용어사전』, 월간미술(1999)

용적 측면에서 먼지를 채취한 방법, 장소, 시간을 밝히고, 채취한 먼지를 작업으로 옮기면서 본인이 작품으로 표현하고자 한 의도와 작업 후 느낀 점을 서술하였다. 형식적 측면에서는 작품에 나타난 추상적 이미지를 분석하고 앞서 말한 먼지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판화’라는 매체를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작업 방법, 재료, 기법 등을 자세히 서술하였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본 연구를 토대로 본인의 작품 제작 의도와 방법을 되돌아보고 본인의 관심사인 ‘흔적’을 가지고 작품이 나아가야 할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본 론

1. 작품 속 시간과 공간

1) 시간과 공간의 의미

시간과 공간에 관한 연구는 오랜 시간 동안 이어져 왔다. 아인슈타인 (Albert Einstein: Germany 1879-1955)의 상대성 이론은 시간과 공간을 연구한 대표적인 이론이다. 상대성 이론에는 특수 상대성 이론과 일반 상대성 이론이 있다. 특수 상대성 이론은 매우 빨리 움직이는 물체는 상대적으로 시간이 더디 흐른다는 가설이다. 일반 상대성 이론은 중력을 이해해야 하는데, 중력을 강하게 받는 곳일수록 시간이 더디 간다는 것이 이 이론의 주장이다.⁴⁾

시간과 공간에 대해 이러한 상대적 해석이 있었다면, 본인의 작업에 적용된 시간과 공간의 의미는 어떤 것일까? 본인이 작업에서 말하는 시간과 공간은 매우 주관적 시간과 공간이다. 앞서 말한 상대성 이론에서는 시간과 공간이 서로 유기적으로 얽히며 수학적 증명이 가능하지만, 본인이 말하는 시간과 공간은 그 장소를 사용하였던 사람들의 행위의 흔적이 시간과 함께 축적된 것으로, 개념적 추론에 의해서 이해 할 수 있다. 시간의 축적으로 발생한 공간 속 흔적은 추론을 이끌어 내는 ‘단서’ 역할을 한다. 우리는 먼지를 통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지, 생기게 된 요인은 무엇인지 유추 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먼지는 시간의 축적과 함께 층위를 이루면서 형성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그 속에는 공간의 용도를 통해 드러나는 장소성과 사

4) 클라우스 마인처, 『시간이란 무엇인가?』, 들녘(2005), p.70

용자의 삶의 흔적으로 나타나는 시간성이 내재 되어있다. 본인은 먼지를 통하여 ‘삶의 기록’으로써 공간과 시간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즉, 먼지는 우리의 삶과 지속적으로 함께하며 형성되는 ‘삶의 흔적’이다.

2) 시 공간 속에 축적된 먼지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흔적이 나타난다. 바닷가의 선박은 녹이 슬고, 오래 사용한 가죽 소파는 가죽이 벗겨진다.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흔적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소파 오른쪽 끝 쪽에만 앉는 습관이 있다. 그렇다면 그 소파는 오른쪽이 왼쪽에 비해 꺼져 있거나, 오른쪽이 왼쪽 보다 닳아 있을 것이다.

먼지 또한 마찬가지이다. 시간이 흐르면 우리가 사는 공간에는 자연스럽게 먼지가 발생한다. 하지만 그곳을 누가, 어느 용도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먼지는 다르게 형성된다. 금속을 다루는 공장은 먼지가 금속 가루와 섞이면서 금속이 지닌 빛을 띠고, 다른 먼지에 비해 무게가 무겁다. 반면에, 도예 작업실에서 생기는 먼지는 흙가루와 함께 먼지가 생기기 때문에 무게도 가볍고 밝은 색을 띤다. 먼지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회색빛의 덩어리진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다양한 질감, 무게, 색을 띤다.



[작품1] Bora Kang, Dust-school, 10×10cm(each), Dust, Double-sided tape & paper on panel, 2016 (Detail-cut)

이는 본인 [작품1] 에서 잘 드러난다. 이 작품은 6개월 동안 본인이 생활하는 학교의 다양한 공간([도표1] p.12)에서 실제 먼지를 채취하였다. 장소는 전기실, 판화실, 도예실, 주차장, 화장실, 창고, 옥상 등이다. 이러한 특정 공간의 먼지는 그 공간 용도에 따라 고유의 이미지-질감, 무게, 색, 형태-를 지닌다. 그 속에는 그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의 행위와 시간성이 결합 되어 있다.

2. 작품의 시각적 표현

1) 판화를 통해 표현된 먼지

본인은 작품 제작 과정 초기에 먼지를 작업의 주재료로 사용함으로써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다. 먼지는 가볍고 눈에 잘 띄지 않는 단점 때문에 청소를 하거나 바람이 불면 쉽게 사라지고, 외부 요인으로 계속해서 모양이 변하기 때문이다. 고민 끝에 먼지를 화면에 옮겨 표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는데, 그 방법은 지(紙)판화였다. 지판화는 영어로 ‘collagraph’라고 한다. 이는 종이가 판이 되어, 종이 위의 오브제나 흠집이 프레스기의 압력을 통해서 그 흔적이 드러나는 기법이다.

본인은 먼지를 지판화로 표현하기 위해 두꺼운 하드보드지를 사용하였다. 주로 780x1080mm 크기의 백색 하드보드지, 목재용 우레탄 바니쉬(vernish), 투명 유광 니스를 사용하였다.

먼저,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하드보드지 위에 니스를 바른다. 니스가 마르기 전에 판 위에 내려앉은 먼지들은 니스가 굳어가면서 함께 고착된다. 그 과정을 3~5번 반복하면 판 위에는 먼지가 쌓이게 되고 코팅이 여러 번 반복 되면서 판도 튼튼해진다. 이렇게 완성된 판은 이제 잉킹(inking) 과정으로 넘어간다. 본인은 잉킹을 할 때 오목판 기법을 활용하였다. 주로 동판을 부식시키거나 드라이포인트를 할 때 쓰이는 기법이다.⁵⁾ 흠집이 난 곳에 잉크를 집어넣기 위해 먼저 화면 전반에 잉크를 골고루 바른다. 그다음, 면 망사를 둥글게 뭉쳐서 손에 힘을 빼고 살살 문질러 가며 잉크를 닦아낸다. 그렇게 하면 흠집이 난 곳에는 잉크가 들어가고 반대로 볼록한 부분에 묻은 잉크들은 면 망사에 의해 닦여나간다. 마지막으로 프레스기를 이

5) 김정순, 『판화미술의 세계(판화미술기법Ⅱ)』, 서치방(1994), p.3

용해 압력으로 잉크를 종이에 찍어낸다.

오목판 기법으로 잉킹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판에 굳어진 먼지가 도드라진 것도 있지만 미세한 것도 많기 때문에 먼 망사로 닦아내는 과정에서 세심하게 작업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많이 닦아냈을 경우, 화면에서 먼지가 표현되지 않고, 반대로 덜 닦아내면 화면이 어두워지기 때문이다. 본인이 원하는 화면을 얻기 위해서는 화면 전반에 잉크를 바른 후, 먼 망사로 닦아낼 때 마치 그림을 그리듯 명도 조절을 자연스럽게 해야 한다.

이 모든 과정이 끝나면 유동적인 먼지는 판에 의해 종이 위에 나타난다. 실제 먼지를 이용해 판을 만들었지만, 작가의 의도에 따라 색을 바꿀 수 있고 명암을 조절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외부 환경에 취약했던 먼지를 판에 옮김으로써 먼지를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 할 수 있고, 회화와 달리 여러 장 찍어낼 수 있다. 하지만 본인이 사용하는 지판화는 동판이나 석판에 비해 판이 견고하지 않기 때문에 다량의 에디션(edition) 제작은 어렵다.

2) 먼지로 표현된 추상적 이미지

본인은 판화 기법을 이용하여 먼지를 표현하기 위해 다양한 장소에서 먼지를 수집하였다. 먼저, 판화 작업실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비교적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적었기 때문에 판을 니스에 바른 후 오랫동안 방치 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여러 번의 과정을 거쳐 먼지를 수집 할 수 있었는데, 장소가 작업실에서 벗어나니 상황이 달라졌다. 먼저, 큰 사이즈(size)의 하드보드지를 들고 다니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리고 본인이 생활하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판을 한 장소에 오랜 시간 방치 할 수 없었다. 이러한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고안한 방법이 시트지를 오려서 가지고 다니는 것이었다.

시트지는 20x20cm 크기로 규격화하였다. 정사각형의 모양은 본인이 여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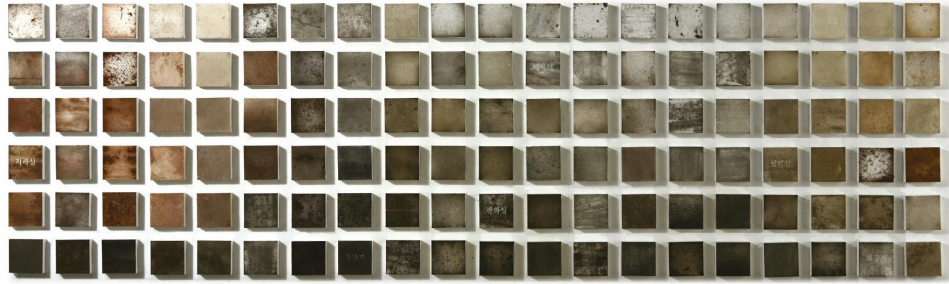
시간에 주로 접속하는 instagram의 사진 형식을 차용하였다. instagram은 2015년 7월까지 정방형의 사진만 업로드(upload)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정방형은 인스타그램의 가장 큰 특징이다.⁶⁾정방형은 평소 instagram과 정방형 모드로 사진 촬영하는 본인에게 가장 친숙한 형태이다. 오늘날 스마트 기기에 익숙한 사람들은 삶을 기록하기 위해서 여행을 가거나, 맛있는 것을 먹을 때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사진을 찍는다. 본인은 스마트폰으로 기록을 남기기 위해 사진 촬영을 하는 대신, 삶의 흔적을 나타내는 먼지를 시트지를 이용해 포착하였다. 시트지에 옮겨진 먼지들은 다시 작업실에 가져와서 니스로 코팅을 한 후, 판으로 만들었다.

올해 7월, 본인이 뉴욕 여행을 갔을 때 또한 시트지 60여 장을 들고 갔다. 센트럴파크에는 다양한 종류의 나무와 그곳에 서식하는 동식물 그리고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만들어 낸 흔적이 있었다. 또한, 시시때때로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면서 자연스럽게 공원에 흔적을 형성하였다. 본인은 센트럴파크에서 2주(2018.6.28.~7.11)에 걸쳐 센트럴파크의 다양한 먼지를 수집하였다. 그곳에 먼지가 형성된 것은 자연이 만들어 낸 것이었지만, 본인은 이것을 본인의 시각을 통해 여러 장소의 성격을 드러내는 흔적으로써 먼지를 포착하여 화면에 옮겼다. 하지만 가장 흥미로웠던 점은 센트럴파크에서 수집한 먼지, 한국에서 수집하였던 먼지들을 통해 드러난 판화 작품 이미지는 시각적으로 차이를 느끼기 힘들었다. 본인은 여러 장소에서 먼지를 채취하였기 때문에 각 이미지들은 시각적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아래 작업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 이전 먼지 오브제(object) 회화 작업, [작품1]에서는 장소 고유의 먼지, 질감 그리고 색감이 직접적으로 드러났지만, 간접적 표현 방법인 판화로 표현하니 대부분의 조형요소들은 중성화되고 형태는 더욱 부각되어 드러났다. 이는 각 표현 매체가 지니고 있는 표

6) 제이슨 마일스, 『인스타그램 파워』, e비즈북스(2015), p.35

현성에 기인한다. 즉, 판화는 압력을 가하여 판의 이미지를 찍어내는 간접적 표현이기 때문에 요철이 잘 드러난다. 본인은 작업을 통해서 매체가 지닌 표현성과 작가의 의도, 둘 사이의 관계설정이 중요함을 깨달았다.

3. 작품 분석



[작품2] Dust-school, 10×10cm(each), Dust, Double-sided tape & paper on panel, 2016

[작품2] 는 본인이 가장 오래 생활하는 공간인 ‘학교’의 여러 공간에서 채취한 먼지로 제작한 것이다. 제작 과정에서 먼지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였다. 먼저, 10×10cm의 판넬(panel) 120개를 제작하고, 켄트지로 판넬을 감쌌다. 그리고 먼지를 채취하기 위해서 120개의 판넬 중에 절반은 접착 스프레이를 사용하였다. 접착 스프레이는 3M 강력고정 임시고정 다용도 스프레이 접착제 455ml를 사용하였다. 먼지는 [도표1]의 장소에 판넬을 가져가서 판넬 위에 접착 스프레이를 뿌린 뒤 채취하였다. 나머지 절반은 양면 테이프를 이용하였다. 양면 테이프는 SOOKWANG사(社)에서 제작한 것을 사용하였다.

6개월(2016.5~2016.10월)에 걸쳐 [도표1]의 장소에 방치 하거나, 위와 같이 찍어냈다. [작품2] 에는 석조장, 비상구, 주차장, 에어컨, 배선관, 실기실, 지하실, 판화실, 자판기, 화장실 총 10개의 단어가 적혀 있다. 제작 방법은

아래와 같다. 먼지를 찍어내기 전에, 판넬 위에 시트지 레이저 커팅(laser cutting) 한 단어를 붙이고 먼지를 찍는다. 그다음, 다시 시트지를 떼어낸다. 시트지를 떼어낸 곳에는 시트지의 흔적으로 단어가 나타난다. 본인은 단어들을 통해 먼지를 채취한 장소를 드러내고자 하였다.

학교 안 [도표1]의 공간에서 채취한 먼지들은 공간의 쓰임에 따라, 먼지의 색, 질감, 형태 등이 모두 다르게 나타났다. 본인은 이 작품을 통해 외부 요인으로 다르게 형성되는 먼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고자 하였다.

[도표1] 먼지를 채취한 장소

번호	건물 이름	호수	용도
1	난향관	101	관리실
2	조형 1관	B201	도자실기실
3	조형 1관	B201-1	유약실험실
4	조형 1관	B201-2	대학원 조소과 실기실
5	조형 1관	B101	대학원 실기실
6	조형 1관	B102	도자실험실
7	조형 1관	B102-1	도자드로잉실
8	조형 1관	101	철조실기실
9	조형 1관	308	암실
10	조형 1관	309	판화과 사무실
11	조형 1관	309-1	세미나실
12	조형 1관	310	판화과 실습실, 산실
13	조형 1관	311	대학원 실기실

14	조형 1관	501	서양화 실기실(2A)
15	조형 1관	502	재료실험실
16	조형 1관	509	서양화 실기실(2B)
17	조형 1관	509-1	멀티플 스튜디오
18	조형 1관	510	전산실
19	조형 1관	601	서양화 실기실(4A)
20	조형 1관	604	서양화 실기실(1A)
21	조형 1관	605	서양화 실기실(1B)
22	조형 1관	606	서양화 실기실(4B)
23	조형 1관	607	서양화과 창고
24	조형 1관	609	시청각 및 영상자료실
25	조형 1관	610	서양화 실기실(3A)
26	조형 1관	611	서양화 실기실(3B)
27	조형 1관	701	공용실기실(PC실습실)
28	조형 1관	703-2	판화실기실
29	조형 1관	709	드로잉실험실
30	체육관	101	COURT FLOOR

[작품3] 은 판화 작업실에서 채취한 먼지를 이용해 제작하였다. [작품 3] 을 제작하기 위해서 두 개의 판을 사용하였다. 하나는 작업실에서 채취한 먼지로 만든 판이고, 다른 하나는 본인이 니스를 뿌리고 그리는 행위를 통해 나타낸 추상적 이미지의 판이다. 종이는 파브리아노 285g 판화 전문 종이를 사용하였다. 잉킹 과정에서는 swallow 사(社)에서 제작한 석판 전용 검정색 잉크와 메디움(Medium) 그리고 은색 잉크를 사용하였다.

먼저, 판화지 앞, 뒷면에 압축 분무기로 물을 고르게 분사한다. 종이는 수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형 비닐봉투 PE에 포장하여 공기를 차단한다. 두가지 판 중에서 먼저, 작업실에서 채취한 먼지로 만든 판을 검은색과 은색을 3:7로 혼합하여 색을 만들고 종이 위에 찍는다. 그리고 본인이 니스를 뿌리고 그리는 행위를 통해 나타낸 추상적 이미지의 판을 검정색으로 그라데이션(gradation)을 표현하여 찍는다.

[작품3] 은 머리카락의 선적인 요소와 니스 덩어리의 면적인 요소가 함께 화면을 구성한다. 본인은 이 작품을 통해서 선과 면의 조형적 구성을 통해 실기실의 다양한 흔적을 생생하게 표현하고자 하였다.



[작품3] Dust(studio)#1, 72×100cm, collagraph, 2017



[작품4] Dust(studio)#2, 20×20cm(each), collagraph, 2017

[작품4] 도판화 작업실에서 채취한 먼지를 이용하였다. Dust(studio) 시리즈 제작 과정 중에 실수한 부분을 다시 재조합하여 만든 것이다. 제작 과정 중에 잉킹 과정 혹은 프린트 과정에서 에디션 제작이 어려워진 것을 사용하였다. 그 중에 일부분을 20×20cm 크기로 자르고, 다시 재조합하였다. 판넬의 20×20cm 정사각형 모양은 본인이 여가 시간에 주로 접속하는 instagram의 사진 형식을 차용하였다. 정사각형 모양은 instagram과 스마트폰으로 정방향 모드로 사진 찍는 것이 익숙한 본인에게 가장 안정적인 모양이다. 27개의 판넬로 구성된 [작품4]에는 세 군데의 빈 공간이 있다. 작품 속 빈 공간은, 먼지가 쌓이지 않은 물체가 있던 자리를 상징한다.



[작품5] Dust(studio)#3, 72×100cm, collagraph, 2017

[작품5] 역시 Dust(studio) 시리즈 작업 과정 중 하나로, 두 개의 판을 이용해 화면을 구성하였다. 하나는 머리카락의 선적인 요소가 돋보이는 판이고, 다른 하나는 먼지의 흔적이 미세한 판이다. 먼저, 먼지의 흔적이 미세한 판에 판화 작업실의 먼지 색과 가장 비슷한 색을 나타내기 위해서 은색과 파란색을 8:2로 조합하여 찍어낸다. 그다음, 머리카락이 붙어 있는 판은 검은색을 사용하여 찍어낸다. 검은색은 판화 작업실에서 채집한 머리카락 색과 유사한 swallow 사(社)에서 제작한 석판 전용 검정색을 사용하였다. 본인은 색상의 대비를 통해 머리카락을 강조하였다. 또한, 선적인 요소가 강한 머리카락이 있는 판과 먼지의 흔적이 약한 면적인 요소가 강한 판을 결합하여 조형적인 화면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작품6] 과 [작품7] 은 외부 전시 일정으로 인해 이천에 방문했을 때 채집한 먼지를 이용한 작업이다. 주로 도로에 떨어져 있는 먼지를 채집했기 때문에 당시 본인이 느꼈던 색으로 먼지를 표현하였다. 맑은 날씨와 대비되는 아스팔트의 색은 이질감이 들었다. 본인은 이것을 검푸른 색으로 나타냈다. 앞서 말한 센트럴파크 작업과 같이 야외에서 진행한 작업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 간 시트지를 이용해 작업을 진행하였다. 시트지는 실내에서 작업했을 때 보다 모래나 자갈, 담배꽁초와 같이 질감이 거친 물체들이 많이 붙었다. 그리고 20x20cm의 일정한 크기의 시트지를 이용하여 작업함으로써 화면을 시트지 안에 다양하게 포착하였다. 아래 [작품7] 은 마치 현미경으로 자세히 관찰하여 확대한 모습으로 보인다. 본인은 이 작업을 통해서 도로 위에 떨어져 있는 흔적을 포착한 당시 본인의 시각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작업 후 아쉬운 점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1년 혹은 분기별로 본인만의 작업 기간을 설정하고 작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하지 못한 점이다. 계획 설정

후 작업은, 이전 작업과 비교하여 기간별로 나타나는 서로 다른 이미지를 분석할 수 있고, 이것을 자료로써 아카이빙(archiving)이 가능하다. 또한, 본인만의 먼지 데이터(data)를 모을 수 있다.



[작품6]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청강가창로389-94 #1, 20×20cm(each),
collagraph, 2018



[작품7]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청강가창로389-94 #1, 20×20cm(each),
collagraph, 2018 (Detail-cut)

Ⅲ. 결 론

본인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각 공간에 다른 모습으로 형성되는 ‘먼지’라는 소재에 흥미를 갖고 작업을 시작하였다. 본인은 2016년부터 2018년 사이의 작업을 본 논문 “시각 표현을 통한 시·공간의 먼지 연구”를 통해 작품 속 시간과 공간을 재해석 하고, 이것을 시각적으로 어떻게 표현했는지 서술하였다.

먼지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흔한 존재이다. 하지만 먼지는 공간의 쓰임, 온도, 습도, 계절 등에 영향을 받으며 각기 다른 모습으로 형성된다. 즉, 이러한 환경에 영향을 받아 색감, 질감, 무게 등이 다르게 나타난다. 본인은 이것을 2016년 회화 작업을 통해 드러낸 바 있다.([작품1] 참고)

하지만 2017~2018년 사이의 판화 작업을 통해 본인은 기존에 알고 있던 것과 정반대의 사실을 알게 되었다. 먼지의 생김새가 장소에 따라 모두 다를 것이라는 가정 하에 진행되었던 특정 장소별 먼지 시리즈는 장소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본인은 장·단기간에 걸쳐 먼지를 수집하고 판화 작업으로 옮겼는데 먼지의 질감과 색감이 제거되고 형태만 남은 판화 작업은 시각적으로 장소별 먼지의 특성을 느끼기 어려웠다. 먼지는 주어진 환경과 사람의 행위에 따라 형성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분석하면 다를 수밖에 없지만, 시각적 표현을 추구하는 본인에게 작품에서 차별성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작품 속 개념을 드러내기 위해서 풀어야 할 과제이다.

지구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삶의 모습은 서로 비슷하다. 먼지도 사람들의 행위와 특정 공간의 장소성에 따라 형성되지만, 형태는 비슷하다. 본인은 작업을 통해서 먼지가 우리들의 삶의 모습과 많이 닮아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많은 동물, 식물들은 다양한 형태로 흔적을 남기며 살아간다. 이 흔적이 다른 것 같으면서도 서로 묘하게 닮아있는 부분이 매우 흥미롭다. 본인은 먼지뿐만 아니라 본인이 가는 장소 행위의 흔적을 남기는 많은 흔적에 주목하여 주변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작업 주제를 확장해 나갈 것이다.

또한,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서 매체에 제한을 두지 않고 영상, 설치 등 다양한 매체와 함께 표현할 것이다. 이번 석사학위 청구 전 <남아있는 것들>을 마치고 나서 판화를 이용한 먼지 표현 방법에 아쉬움을 느꼈기 때문이다. 판화로 표현된 먼지는 판화의 복수성을 이용하여 여러 장 찍어 낼 수도 있고, 본인의 선택으로 색과 명암 등을 자유롭게 조절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먼지를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므로, 실제 먼지를 이용한 이전 회화 작업과 비교했을 때, 간접적으로 표현된 것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단점은 다른 매체와의 결합을 통해서 매체의 특징을 활용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인이 진행하는 작업은 장소별로 먼지를 채집하고 그것을 시각적으로 풀어내는 작업이기 때문에 프로젝트(project)를 진행하듯이 작가가 본인이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점을 깨달았다. 여기서 체계적인 계획이란, 작가가 장소별 먼지를 채집할 당시 장소 선정 이유, 채집 방법, 사용된 재료, 채집 기간 등을 말한다. 체계적인 계획 후의 작업은 본인만의 데이터(data)를 수집 할 수 있고 변화 과정을 알 수 있다. 또한, 계획 후 작업

을 통해 기간별 작업의 차이점을 시각적으로 비교해 볼 수 있으며 자료로써 아카이빙(archiving)이 가능하다.

참 고 문 헌

“국어”, 『동아 새국어사전』, 두산동아(2006)

김정순, 『판화미술의 세계(판화미술기법Ⅱ)』, 서치방(1994), p.3

“미술”, 『세계미술 용어사전』, 월간미술(1999)

제이슨 마일스, 『인스타그램 파워』, e비즈북스(2015), p.35

클라우스 마인처, 『시간이란 무엇인가?』, 들녘(2005), p.70

The New York Times,

“At Venice Biennale, Erwin Wurm Makes Sculpture ‘a Form of Action’”

<https://www.nytimes.com/2017/06/15/arts/venice-biennale-erwin-wurm-sculpture.html>. (2018년 10월 20일)

ABSTRACT

A Study on the Dust of time and space

by Visual Expression

- Focused on my works -

Kang, Bo Ra

Department of Printmaking

Graduate School of

Sungshin University

This paper is a study of the contents and formative development process centered on the artworks that were exhibited in <Something Left> to claim for a master's degree in 2018.

When we move away from the house that we lived for a long time, we can find traces on the floor, transferring furniture. The meaning of traces is the mark or vestige left after a phenomenon or a substance had disappeared or passed. People show different traces in their own lives, depending on where and how they live. Through the traces, we can imagine the figure of the person who lived there, the purpose of the place, and what was there. I work on dust in these traces.

Dust has a close relationship with our lives. Dust is a trace of the accumulation of the life of a person who used space. This is a 'Traces

of life' in which the act of life, including space and time, is embedded. Erwin Wurm (Austria 1954-) is a artist who used dust. He made <*Dust Sculptures*> series. Above all, The "Pedestals" is a representative work in which he placed an object on the pedestal for three years (1990-1993) and removed it and presented the remaining dust as a sculpture. The artist broke a prejudice that only the sculpture on the pedestal is a work and presented the surrounding dust as a sculpture, making the audience imagine what would have been in an empty space.

I am interested in dust formed by the correlation of space and time, but dust is a record of 'locality' of a specific space and 'traces of life' that combines my actions in the space. Therefore, I collected real dust in the classroom and the studio of my school. Dust has a property that occurs depending on the use of space and the person who uses it in a long time. The attribute contains the identity of the space and the traces of me. The space can be at school or house. My artworks, which are completed through a long work process, are expressed in abstract shape and colors, etc. Showing the uniqueness of dust rather than making a specific image on a canvas. Through the work above, I would like to show that abstract shape and colors are a symbol of countless images, emotions and traces of life that I experience every day.